

출장보고서

I. 출장개요

1. 출장자: 황지영 유럽팀 연구원
2. 출장기간: 10월 4일~10월 9일(4박 6일)
3. 출장지: 우크라이나 키예프
4. 출장목적: 기본연구 'KIEP-KOTRA 공동연구: 우크라이나의
주요사업' 수행을 위한 현지연구조사

II. 출장일정

일자	행선지	활동사항	비고
2009-10-04(일)	우크라이나 키예프	인천 출발, 러시아 모스크바 경유, 우크라이나 키예프 도착	
2009-10-05(월)		Dragon Capital, Ins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(IERC) 등 방문,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김도현 참사 면담	
2009-10-06(화)		엘지전자, 현대자동차, 국민은행 현지사무소 등 방문	
2009-10-07(수)		한국생산기술연구원 파견관 면담, 키예프 코트라 무역관 방문 등	
2009-10-08(목)	인천	우크라이나 출발, 체코 프라하 경유, 인천 도착	10-09(금) 도착

Ⅲ. 활동 내용(주요 조사내용)

1. 주요 면담일정

□ 투자기관 드래곤캐피탈(Dragon Capital) 현지법인 방문

- 면담일시: 10월 5일 오전 11시 00분

- 면담자: Managing Director Biran Best, Economist Olena Bilan

□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 방문

- 면담일시: 10월 5일 오후 1시 30분

- 면담자: Dr. Igor V. Burakovsky(Director), Ms. Veronika Movchan(Academic Director)

□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방문

- 면담일시: 10월 5일 오후 4시

- 면담자: 김도현 참사

☐ LG전자 현지법인 방문

- 면담일시: 10월 6일 오전 11시
- 면담자: 윤순우 과장(IT Marketing Manager)

☐ 현대자동차 현지법인 방문

- 면담일시: 10월 6일 오후 2시
- 면담자: 김하영 부장(General Manager)

☐ 국민은행 우크라이나 사무소 방문

- 면담일시: 10월 6일 오후 4시 30분
- 면담자: 윤영현 부소장

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면담

- 면담일시: 10월 7일 오전 11시
- 면담자: 이승재 우크라이나 파견관

☐ KOTRA 키예프 KBC 방문

- 면담일시: 10월 7일 오후 3시
- 면담자: 최현필 관장, 김하민 부관장, Mr. Roman Romanchuk(commercial Section Specialist)

2. Dragon Capital 방문: Managing Director Biran Best, Economist Olena Bilan

- ☐ 국제 철강 가격 및 수요 하락한 가운데, 우크라이나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음.
- 외국인투자 비중이 70%를 유지할 만큼 대외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금융시장에서 디레버리지가 발생하자 우크라이나의 금융 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상태에 빠지게 됨.
 - 러시아, 카자흐스탄의 경우 석유 가스 수출이 높은바, 국제 석유가스 수요는 가격 하락만큼 크지 않아서 우크라이나 경제 만큼 큰 타격을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- ☐ 우크라이나 산업생산 증가율이 7월 -26.7%, 8월 -23.3%로 하락세가 다소 둔화됨.
- 전년 동월 대비 월별 통계에 따르면, 6월 이후 산업생산 감소세 둔화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나, 경기침체 저점을 통과한 것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.

- 지속적인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우크라이나 전체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임.

□ 은행대출 규모에는 변화가 없음.

- 은행 대출 금리도 1사분기 27%대의 고금리에서 2사분기 20% 아래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, 가계와 기업의 대출 상환 불확실성이 높아 은행 대출액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음.

- 사실상 우크라이나 내 많은 군소은행들은 개인 기업의 자금고 성격이 짙은 바, 대출이 이뤄지더라도 실물경제부문의 경기활성을 촉진하기 보다는 주주기업의 자금지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음.

□ 우크라이나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비효율적인 조세제도, 관료주의, 만연한 부패 등임.

- 이러한 문제들이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.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나라로는 불가리아를 꼽을 수 있음.

□ 2010년에는 4%의 플러스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며, 우크라이나 전체 경기 회복을 위해 2010년 하반기에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 및 재정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2. Institute for Economic Research and Policy Consulting
방문: Dr. Igor V. Burakovsky(Director), Ms. Veronika
Movchan(Academic Director)

- 2009년 물가상승률은 15%, 실업률은 9~10%, 경제성장률은 -16~-18%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.
- 2009년 물가상승률은 1사분기 20%대 → 2사분기 이후 14~15%대를 유지하고 있음.
- 우크라이나의 경제 위기는 크게 철강 및 화학부문의 수출 감소,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등의 외부요인에서 비롯된 문제와 경기과열, 국내경제의 달러화(dollarization) 등 내부 불균형 등이 원인으로 작용함.
- 수출감소와 신용경색으로 인해 건설경기 침체, 그리브나 가치 하락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수입 감소, 교통 인프라 투자 감소 등이 발생함.
- 농업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이 경기 침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.
- 농업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부문으로서, 2009년 1~9월 농업생산 증가율은 3.3%를 기록함(2008년 1~9월 증가율 15%).
-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낮지만, 2009년 곡물 수확률은 좋

은 편임.

- 2009년 1~9월 전체 공업생산증가율(-28%), 건설증가율(-50%), 소매거래량(-21%) 등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.

□ 현재 대외부채의 심각성은 국가보다는 기업의 부채비중이 높은 것에 있음.

- 총 1,040억 달러의 대외부채 중 140억 달러는 국가, 900억 달러가 기업의 대외부채임.

- 기업의 채무구조조정이 용이하지 않으며, 채무 상환 일정이 연기된 경우라 할지라도 대부분 2011~2012년에 상환일로 조정된바, 2~3년 후의 채무상환으로 인한 금융 위기가 또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.

□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, 2사분기부터 경기 침체가 둔화되거나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.

□ 신규 고용 부족, 높은 실업률 등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함.

□ 우크라이나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행정 개혁이 필요함.

- 도로 교통망, 물류 시스템 등 모두 구소련시대 건설된 것이기에 매우 낙후된 상황이며, 이러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식 또한 구소련시대적인 요소가 많아 비효율적임.
 - 우크라이나의 경제특구정책 또한 지역 및 산업 발전을 위한 특혜 제공 차원이었으나, 정부의 관심은 세수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실상 특혜를 제공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음.
 - 각 종 법규와 정책이 수시로 바뀌는 것과 행정적 관료주의가 만연한 것도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데 장애요인임.
- ☐ 한·우크라이나 협력 유망 분야로는 건설 인프라, 조선, 기계제작, 농업 등임.
- 농업부문의 경우, 우크라이나 남부지역에 이미 한국 업체들이 진출해 있음.

3.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 방문: 김도현 참사

- ☐ 우크라이나의 철강 품질은 낮은 수준으로서, 50~60%가 중국으로 수출되며, 고품질의 철강은 수입하는 실정임.
- ☐ 우크라이나는 개발 가능한 자원이 부족하며, 사실상 자원수입국이라고 해도 무방함.

□ 우크라이나의 국민 경제는 무역과 부동산투기에 집중돼 있어 세계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의 영향이 매우 큼.

□ 우크라이나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세금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특혜 부재, 부정부패(특히 통관, 관세 부문) 등임.

□ 가공 기술 부족과 물류 인프라의 낙후로 인해 기존의 원재료를 가공 또는 상품화하지 못하고 수입하는 실정임.

- 심지어 농업부문에서도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하는 실정임.

□ 한국의 기업진출 및 한·우크라이나 협력 방향은 다음과 같음.

- 유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는 우크라이나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대기업 중심의 소매판매 부문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.

- 우크라이나의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아시아 지향적인 요소가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임. 이에 따라 단기적 이익 보다는 장기적인 전망을 바라보고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.

○ 우크라이나 정부의 외교전략 주요 대상국은 미국, 유럽, CIS, 중동, 그 다음 아시아 순임.

- 음악과 영화 등의 문화 홍보를 통한 문화적 접근, 고급 상용화

기술 제공, 글로벌 이미지 부각, 유럽상품과 비교 시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.

- 양국 협력 부문으로는 에너지 효율 제고, 농업 등이며, 고려인과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

4. LG전자 현지법인 방문: 윤순우 과장

□ 우크라이나의 컴퓨터 시장은 삼성, LG, 대만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- 노트북 시장은 저가 상품을 내세운 대만 브랜드가 전체의 70%를 잠식하고 있음.

- 모니터와 기타부문의 경우 삼성, LG 등의 한국브랜드 비중이 높음.

- 데스크탑 컴퓨터가 노트북에 저가인 탓에 컴퓨터별 판매는 60:40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나, 향후 1~2년 사이에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. 현재 넷북 판매 시도를 검토·시장조사 중임.

○ 데스크탑 컴퓨터의 경우 도매상들에 의한 거의 모두 조립 제품임.

□ IT산업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, 90%가 도매상들이 장악하여

소매상들에게 유통판매되고 있음.

- 유럽과 비교해보면, 도매상의 장악비중이 50% 미만이며, 나머지는 가전채널(consumer electronic shop, CES)을 통해 판매되고 있음.
- 우크라이나의 도매상들이 절세통관방법을 잘 알고 있어, 제품 유통 시 가격 면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음.
- 우크라이나의 유통구조가 서구화 수준이 되기까지는 앞으로 3~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LG전자의 경우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상품은 모니터 부문이나,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임.

- 모니터 가격의 90%는 패널가격과 연동돼 있는바, 매년 패널 가격은 하락하고 있음.

□ 우크라이나 IT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통관제도 개선, 투명한 경쟁관계 보장이 필요함.

5. 현대자동차 현지법인 방문: 김하영 부장

□ 우크라이나는 인구가 많고, 소비성향이 강하여 자동차판매를 하기에 적합한 시장 특징을 지니고 있음.

- 자동차 판매시장을 살펴보면, 대리점은 수입, 통관, 판매를 담당하고, 현대자동차 지역본부는 마케팅, 자금, 판촉, 딜러개발 등을 지원하는 협력구조를 갖고 있음.
- 우크라이나 자동차는 60%가 할부로 판매되며, 10%는 자동차 리스, 나머지는 현금으로 판매됨.
 - 이에 우크라이나 개인대출에서 자동차 대출 비중이 높음.
 - 그러나 2009년 신용경색이 심화되어 대출금 회수가 증가하고, 대출상품 모두 담보를 요구함에 따라, 10월 현재 자동차 할부수준은 3~4%까지 급락한 상황임.
 - 과거에는 무담보 대출, 선수금 또한 없거나 10% 정도였으나, 현재는 선수금이 30% 수준임.
- 2008년 하반기 경제 위기로 인해 환율이 60% 하락함에 따라 기업의 환차손이 증가하고, 금융(이자)비용이 증가하였음.
-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판매 도요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함.
 - 공격적 마케팅 구사, 대리점 지배력 강화, 일본 자동차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킴.

○ 도요타 가격이 현대자동차에 비해 130~140% 상승함.

- 한·우크라이나 양국 협력을 위해 현지 Opinion leader들에게 한국산업시설 홍보 및 한국이미지를 제고시키고, 기업과 정부 차원에서의 양국기술협력 증진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함.

6. 국민은행 우크라이나 사무소 방문: 윤영현 부소장

- 우크라이나는 185개의 군소은행이 난립해 있으며, 중앙은행은 금융 감독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.
- IMF가 2년간 대기성차관협약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16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하고, 몇 가지 지원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강제집행력이 크지 않아 우크라이나 금융개혁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임.
 - 2008년 10월 IMF는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균형예산편성, 경상수지적자보완, 긴축통화정책 실시 등을 제시하였음.
- 우크라이나의 금융시장은 정경유착의 성격이 짙고, Paper company를 통한 변칙성 대출 제공이 많음.
 - 은행과 기업(은행의 주주) 관계 대출이 많아 은행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임.

- 우크라이나 최대 은행은 Privat Bank로서, 철강 및 금융 부문의 대기업인 Privat Group의 지배하에 있음.
- 우크라이나 은행은 1-4그룹으로 나뉘어 관리되는바, 1그룹에 속하는 은행은 7~8개 은행으로서 전체 은행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~90%를 차지할 만큼 지배적임.
- 그룹 1 은행의 외화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에서 50% 이상을 차지할 만큼 외화대출이 심각함.
- 우크라이나 은행의 개인대출은 사실상 거의 정지된 상황이며, 대출충당금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.
- 지금까지 개인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대출을 포함한 consumer loan이 대부분을 차지함.
- Consumer loan: 냉장고, 노트북 구매 시 구매제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제공 받음.
- 대출계수가 연초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우크라이나 경제 회복은 철강 가격 및 수요 회복, 러시아경제 회생 여부가 주요 관건이 될 것임.
- 대러시아 수출입 비중이 40~50%를 이룰 만큼, 러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음.

- 우크라이나의 무역구조는 철강 원자재 수출이 대부분이며, 소비재는 거의 모두 수입하는 구조임. 물류시스템 열악, 인프라 부족 등의 원인으로 도축산업이 미발달됨.
- 철강, 농산물 등의 국내 판매가격이 수출가격보다 훨씬 높은 비이상적인 가격 및 유통구조를 지님.

7.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면담: 이승재 우크라이나 파견관

☐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과학기술협력 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음.

- 한국은 원천기술은 없지만, 상업화 기술이 발달돼 있는 반면, 우크라이나는 원천기술은 갖고 있으나 이를 상업화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양국이 이를 상호 보완하여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분야가 과학기술협력산업임.
- 양국의 과학기술협력 구조는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양측 연구소, 한국의 민간기업 등 3자 협력 구조로 진행하고 있음.

☐ 우크라이나는 금속·소재, 구조·용접, 표면처리 분야의 우수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.

- 이에 양국 과학기술 협력사업의 70%가 금속관련 사업으로서, 2004년 3개 → 2004년 5개 → 2008년 10개의 프로젝트가 운영

중임.

- 항공우주산업에 중요한 기술인 용접기술 부문에서도 우크라이나의 경쟁력이 매우 높음.
- 용접기술은 알루미늄합금계열 또는 마그네슘합금계열 등의 항공소재에 많이 적용되고 있음.